



이화 의학교육 소식지

Ewha Medical Education Newsletter

이화의대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 이화의대 교육목표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지도자 양성

2022학년도 2학기 「ESAC 강좌」 개최

KAIST 여현덕 교수 초청

“혁신과 창의는 어디에서 오는가? AI thinking 인공지능 vs 인간지능”



▲ 26일 의학관(마곡)에서 ESAC 강좌가 개최되었다.

우리의대(학장 하은희)는 2022학년도 2학기 Ewha Social Active Communication (ESAC)을 10월 26일(수)에 의학관(마곡) 계림홀에서 개최했다. 우리의대는 매년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대외 의사소통 능력 제고를 위해 의료계 및 사회 각 분야 인사를 초청하여 ESAC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ESAC 강좌는 KAIST 여현덕 교수를 초청하여 ‘혁신과 창의는 어디에서 오는가; AI thinking

인공지능 vs 인간지능’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좌의 연사인 여현덕 교수는 KAIST 기술경영대학원 교수이며,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학습법 설계자이다. 여현덕 교수는 영국 애버딘대학교(University of Aberdeen) 교수(부총장 대우), 스위스 다보스포럼(World Economic Forum) 수석 자문역 및 차세대 리더 선발 위원, 연세대 교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연구 분야는 4차 산업혁명 트렌드, 인지과학, BI융합, 인공지능, 블록체인, 국제개발, 창조 경영/기술과 비즈니스, 정치, 경제 등이다. ‘혁신과 창의는 어디에서 오는가; AI thinking 인공지능 vs 인간지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좌에서는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탄생, 인공지능-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인공지능(AI)의 작동 원리와 유형, AI Storytelling; AI thinking의 내용을 다루었다. 여현덕 교수는 “AI가 고도로 발달해 가더라도 인간이 잘 하는 것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것과 인공지능이 잘 하는 것을 결합하는 협업지능(CQ; Collective Intelligence Quotient)이 미래인재의 핵심”이라며 “협업지능(CQ)을 통해 미래 의료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며 강의를 마쳤다. 이날 특강에서는 200여명의 의과대학 재학생(비대면 포함)과 하은희 의과대학장, 정성애 교무부부장, 편옥범 이화의학교육센터장, 김관창 기획부장이 학생들과 함께 하였다.

참여소감문 혁신과 창의는 어디에서 오는가? AI thinking 인공지능 vs 인간지능

의학과 2학년 최유빈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여전히 내겐 멀게만 느껴졌다. 중요하고 혁신적인 건 알지만, 아직도 막연하게 느껴지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 ESAC 강의에서 내 안의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AI의 개념에 대해 비로소 수용하고 외우게 된 것인데, 바로 여현덕 교수님의 인공지능 암기법 덕분이다. 예를 들어, 강의 도중 들려주신 시가수(김광석의 보고싶다를 부르는 시가수)는 끊임없는 음성 인식 및 강화 학습을 통해 탄생하였다. 감히 그 가수의 감정까지 다 담아내어 영상 속 패널들과 더불어 대강당에 있던 우리들도 시가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크게 놀랐던 기억이 난다. 또한 의학의 경우, 영상의학적 진단에서 암이나 골절의 검출이나 영상 분할 및 화질의 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시가 이용되고 있다. 인간의 지적능력을 컴퓨터를 이용해 구현하는 인공지능영상을 활용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의학도로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인공지능은 우리

의 직업을 다 대체할 위험한 존재인가. 이 강의에서는 아니라고 한다. 우리는 AI와 대립하는 게 아니라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학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AI 단독으로는 의사들을 대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제시한 의료 정보와 진단들에 대해 우리 의료진들은 인문학적 상황과 사회의 가치관에 맞게 다시 한 번 통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재 의학교육에서 일방적인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PBL 등 그룹 토론을 통해 고심하는 과정을 추구하고 가르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이번 ESAC 강의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여현덕 교수님의 강의 전달 방식이었다. 앞서 제시된 인공지능의 쉬운 암기법, ESAC 강의 중간중간 AI 영상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번 ESAC 강의를 진행이 되었는데, 이를 보며 일반인들(전문가가 아닌)에게 전문 지식을 전달 때의 필요한 자세들을 배울 수 있었다. 어떤 지식이든, 듣는 이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해야 그 지식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듣는 이들이 비로소 공감 및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혁신적이고 기발한 지식이라도, 소수에 갇혀있다면 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의학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나로서도, 의학 교육 및 의학 지식의 전달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의학교육 소식

'2022학년도 TBL 워크숍' 개최

TBL의 원리와 적용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 진행



▲지난 9월 26일 의학관(마곡)에서 「2022학년도 TBL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우리의대는 지난 9월 26일 의학관(마곡)에서 「2022학년도 TBL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이화의학교육센터가 TBL의 원리, 모듈 개발, 수업 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의과대학 수업에서 TBL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하였으며 19시부터 21시까지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번 워크숍에 TBL 위원회 위원, 증상학·임상중재연구 등 TBL을 활용하는 과정 책임교수, TBL에 관심 있는 과정 교수 총 31명이 참석하였다.



▲하은희 의과대학장의 인사말씀



▲윤현배 교수(서울의대의) 발표모습

워크숍은 ▲Principles and Practices of TBL (김민석 교수, TBL위원/약리학교실), ▲Creating an Effective TBL module and experiences (윤현배 교수, 서울의대의 학교교육실), ▲Improving Facilitation Skills for TBL and experience (이경은 교수, TBL위원장/혈액종양내과)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서울의대 윤현배 교수를 초청하여 TBL 문항 개발의 원칙과 서울의대의 문항 개발 사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주제 발표 사이의 질의응답 시간에 TBL 모듈 관리, 사전학습, 평가 등의 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TBL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이경은 TBL위원장의 발표모습



▲김민석 TBL위원의 발표모습

참석한 교수들은 "TBL의 실제적 고민에 대한 강의를 논의가 좋았다", "실제 사례와 개선된 사례가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하은희 의과대학장은 "그동안의 TBL 운영 사례들을 소개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의대 교육에 TBL을 더 많은 적용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화의학교육센터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2022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워크숍' 개최

이화의대 Vision, 학사·인사제도, 교육과정, 의사 국가고시, 문항출제 등 안내



▲지난 7월 의학관(마곡)에서 신입교원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우리의대는 신입교원 대상 워크숍을 지난 7월 이화의학교육센터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7월 열린 이번 워크숍은 의과대학 교육 및 교무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의과대학 교수로서 책무성과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COVID-19 시기 신입교원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한 교원들도 초대하여 진행되었다. 내과학 송은미 교수, 흉부외과학 신수민 교수, 정형외과학 박인 교수, 환경의학 김이준 교수 등 신규임용 교원 8명이 날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새로운 이화의 탄생 Ewha Medicine(하은희 의과대학장), ▲의과학연구소 소개(정성철 의과학연구소장), ▲학사 안내 및 교원종합평가(정성에 교무부부장, 정혜선 교무차장), ▲의과대학 교육과정 소개(양현중 이화의학교육센터 운영위원), ▲CPX-의사 국가고시 실기 변경(권형주 CPX위원장), ▲CBT 소개 및 시험문항 출제(이혜진 임상교무부장)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이날 참석한 하은희 의과대학장은 "우리는 Future Ready Ewha Medicine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교수님들과 학생이 있다. 우리 함께 이루어 가자"고 말했다.

신입교원 기고문 의사에서 의대교수로

흉부외과학교실 신수민 교수

의사가 된 후 가장 많이 한 일은 배우는 것이었다. 환자를 보는 법을 배우고, 질병을 배우고, 어깨 너머로 선배와 스승이 하는 수술을 보고 배우며, 내 것이 되도록 반복하는 것이 매일의 일상이었다. 그렇게 십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후배가 생기고 제자가 생겨서 그 동안 내가 배워왔던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다음 일상이 되었다. 그러기에, 의과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좋은 교육자가 되는 것이지만, 막상 다른 일보다 소홀하게 대하기 쉬운 듯하다. 2022년 여러 차례 교육세미나를 거치면서 의사로서 의학을 공부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의과 대학 교수로서 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좋은 교육자가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선생으로서 나는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을까? 아직 초보 선생이지만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의학교육센터의 도움을 청하고 싶다.



Goodbye COVID, Hello EWHA

이화의학교육센터 부센터장 이희성



▲ TBL 전용 강의실을 이용한 TBL 수업 모습

가나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몇 년간은 소통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은 시간이었다. 학생들과 온라인에서 만나 수업을 진행하면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마도 모든 교육자들의 마음이 비슷했으리라 생각한다. 본과 3학년이 되어 병원 임상실습을 하면서 실제 교수님의 얼굴을 처음 본 학생들 중에는 화면에서만 보던 교수님을 실제 마주치니 연애인을 만난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학생들도 많이 답답했을 것을 생각하니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 올해부터 대면 강의가 재개되면서 학생들을 마주 하니 저절로 감격이 되었다. 지난 2주 동안은 거의 매일 학생 강의를 위해 목동병원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마곡을 오가며 강의와 진료를 하였으나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힘이 나는 듯 했다. 의과대학 커리큘럼이 매우 고단하고 실용이 없었는데 모든 학생이 집중해서 강의에 참여하였다. 잠이 쏟아지는 오후에도 한 명도 빠짐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서 우리 나라 의학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의 모습이 겹쳐졌다. 의사이자 교수로 지내오면서 진료와 연구도 중요하지만 의학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의학교육은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

면서 전문적인 지식 뿐만아니라 임상 경험이 중요한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복잡한 의학교육만의 체계가 있고, PBL, TBL, OSCE, CPX, LIC, Portfolio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이 있다. 지난 6년간 의학교육차장 및 의학교육부센터장을 맡으면서 이러한 교육 체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다양한 방식에 따라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다양하였다. 자랑스럽게도 우리 의과대학은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적용하는데 최적화된 시설 즉 하드웨어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의과대학 건립부터 계획하고 갖춰 온 여러 시설들이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빛을 발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된 것이다. 지난 11월 15일부터 4일 동안 TBL 전용 강의실에서 증상학 TBL 수업이 진행되었다. 최근 임상 현장에서 다학제 진료가 자주 이뤄지고 있는데 다학제 진료는 한명의 환자를 위해 여러 의사가 동시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단 및 치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TBL 교육은 다학제 진료와 비슷하다.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조별로 여러 학생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여 문제를 풀어내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도와준다. 특히 앞으로의 임상 현장은 협업이 중요한데 이러한 교육이 크게 도움되리라 생각한다. 그 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움츠러들었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하은희 학생님께서 의학 교육센터를 설립하신 후 의학교육에 아낌없는 투자가 이뤄지면서 의학교육 소프트웨어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하드웨어는 최고였으나 소프트웨어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이제 곧 모든 요소가 최고가 되리라 기대된다.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 우리 이화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이다. Future Ready Ewha Medicine!

나의 의과학 연구 경험

의학과 3학년 최새슬

예과 1학년 팀 리더십 프로젝트 수업에서 미생물학 교실의 우소연 교수님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처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T-MSC의 배양과 분화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실험과 연구를 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던 저에게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다는 것은 가슴이 뛰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조금 더 연구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예과 2학년 의과학개별연구 수업에서 분자의과학교실의 조인호 교수님 랩에 지원해 본과 1학년 의과학 심화연구, 그리고 방학마다 열리는 Lab Rotation까지 시간이 될 때 마다 T-MSC의 분화에 관련한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분자의과학 교실의 안영호 교수님께서 직접 논문을 써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많은 논문을 읽으며 리뷰 논문을 작성하고, 저널에 등재해보는 보람찬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분자의과학교실에서 다양한 실험 기법을 배우고, 진행되고 있는 많은 연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며 자연스럽게 연구를 하는 임상 의사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된 것 같습니다. 학부생인 제가 이렇게 다양한 연구에 참여하고, 또 논문까지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우리 의과대학에서 예과생일 때 부터 실험을 할 수 있는 열린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연구에 참여해보니 본격적인 의학 학습이 시작되면 학업 이외의 연구에는 흥미를 가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시간이 많은 예과생일 때부터 연구에 대한 흥미를 가진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에 대한 선택지를 넓혀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료혁신과 여성벤처 I : 2022년 처음 시작한 한 학기를 마치며

의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안소현



2022년 2학기 신설 운영된 <의료혁신과 여성벤처 I> 과목이 이룬수업과 더불어 의대 학생님 및 권기환, 신태영, 이레나 교수님 등 의대 창업 교수님들의 특강 멘토링 시간 등 알찬 수업시간을 뒤로하고 어느덧 종강을 맞이하였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사업계획서를 최종 과제로 작성해 보았고, Barrier-free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어나더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물 감지 어플(워치용)> (1등 이재은), <노포비아: 사회공포증 치료 VR 구독 서비스> (2등 신규빈), <Mermaids: AI voice transfer 어플> (3등 최지윤) 등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다른 학생들의 아이디어도 매우 훌륭하였다. 본 2 최지윤학생은 “본과수업은 보통 기초나 임상 전공과목을 짝 채워 바쁘게 진행되는데, 전공선택과목으로 창업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새롭고 유익했고, 특히 의료보건계열에서의 창업사례 특강을 들으며 도전의식을 배웠고 실제 창업계획서를 써 보는 활동은 창업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 고민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향후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욱 좋은 커리큘럼을 준비하여 참신하고 열정적인 의과대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좋은 수업으로 다시 만날 계획이다. 참고로 “의료혁신과 여성벤처 I”은 “의료혁신과 여성벤처 II”으로 심화되어 4학년 선택실습 프로그램으로 개설되었으며, 창업보육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의과대 학생과의 매칭을 원하는 우수한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창업기초이론을 포함한 프로젝트 중심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열정있는 많은 학생이 참여하여 도전해 보기를 바란다.

의학교육 세미나

의학교육 세미나는 의학교육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우리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함께 고찰하고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제5차 | 문항출제와 평가플랫폼

일시 : 9월 29일(목) 오후 4시 장소 : 의학관(마곡) 301호



5차 세미나는 '문항출제와 평가플랫폼'을 주제로 하였으며 △ 준거설정과 의사국가고시 문항 개발과정, △ 문항출제 방법과 문항분석, △ 평가 플랫폼 등을 세부 주제로 다루어 발표가 끝난 후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5차 세미나는 의과대학 단위에서 의사국가고시의 시험 유형에 맞는 시험 문제 출제와 문항 관리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례의 논의를 진행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절대평가와 학생들의 수행능력 간의 관계, 문항개발 관련 교수 워크숍 방법, 의학교육과 문항출제에 교수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다루었다.

제6차 | 이화의대 Vision 실천 전략

일시 : 10월 27일(목) 오후 4시 장소 : 의학관(마곡) 111호



6차 세미나는 '이화의대 Vision 실천 전략'을 주제로 기획부에서 준비하였다. 기획부장 김관창 교수가 △ 발전계획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역대 발전계획 수립 경과, △ 발전계획 추진 현황, △ 결론 및 주요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발표한 뒤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에서는 교수의 의학교육 참여 활성화 방안, 임상실습 E-포트폴리오 활성화 방안, 이화의학교육센터와 임상교무부의 협업, 의료원과의 협업 등을 다루었다.

제7차 | 「미래의학을 선도해나갈 '이화 임상실습교육'의 도전과 과제」

일시 : 11월 24일(목) 오후 4시 장소 : 의학관(마곡) 105호



7차 세미나는 「미래의학을 선도해나갈 '이화 임상실습교육'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이화의학교육센터에서 준비하였다. 이화의학교육센터 정소미 특임교수가 △ 이화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현황, △ 이화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평가, △ 이화의대 임상실습 E-포트폴리오, △ 앞으로의 도전과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하였고, 발표가 끝난 뒤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에서는 각 임상실습 과의 실습 책임교수와 교육담당 교수가 참석하여 개별 임상실습 현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앞으로 임상실습 질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교수의 임상실습의 표준화, 임상실습교육을 위한 학교의 지원, 임상실습교육 평가를 위한 후속 작업, 평가 결과 환류 등이었다.

글로벌 인재 포럼 (The Next: 대전환시대의 인재) 참여소감 : 디지털 시대 창업정신과 성공 DNA

이화의학교육센터 연구원 고아라

대전환의 시대에서 주목하는 새로운 인재 모델은 창업정신과 이를 이루기 한 성공 DNA를 품고있는 인재상을 주목했다. 창업인재들은 판교 등 스타트업성지를 벗어나 자유로운 생각과 두려움 없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성공 DNA를 품고있는 인재들 찾기 위해 대학으로 시선이 향하고 있다. 앞으로의 대학은 거대한 교육의 산실에서 창업인큐베이터의 역할을 주도 있도록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성공 DNA, 글로벌 포럼 연자로 참여한 연자는 공통적으로 사용자 기반 문제해결력과 문제에서 출발한 시장에 없던 창조적 혁신을 강조하며 개척자정신을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혁신주도적인 기업형태에서 기업가정신과 지속적인 돌파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조직 안정성과 단순성이었다. 구성원간에 기업인생을 공유하는 것부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화 작업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지구력이 된다. 우리 의대는 실제로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춘 인재들 키워낼 수 있도록 의료혁신과여성벤처 교과목을 신설하였으며 의사과학자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다. 우리 학생들의 뛰어난 의료전문성과 기업가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에 혁신적인 Game Maker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2022-23 교내/외 의학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일정

교내

날짜	주최/주관	워크숍 및 세미나	장소/비고
11. 07(월)	이화의학교육센터	2022-2 이화의대 신입교원 워크숍	의학관(마곡) 105호
12. 21(수)		제8차 의학교육 세미나	센터 자체 세미나
2023. 01. 26(목)	이화의학교육센터/ 의학교육학교실	제9차 의학교육 세미나	의학관(마곡) 301호
2023. 02. 23(목)		제10차 의학교육 세미나	
2023. 03. 30(목)		제11차 의학교육 세미나	

교외

날짜	주최/주관	워크숍 및 세미나	장소/비고
12. 09(금)	한국의학교육학회	2022년도 제6회 의학교육 평가 컨퍼런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계단강의동
12. 01(목) - 02(금)	의학교육연수원	제136차 전국의학대 신입교수 워크숍	온/오프 블렌디드
12. 14(수) - 15(목)		제137차 전국의학대 신입교수 워크숍	
12. 16(금) - 17(토)	한국의학교육학회	2022년도 임상실습 교육과 평가 워크숍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 소식지에 게재할 의과대학 가족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원고분량은 A4용지 1/2매 내외이며 angelica66@ewha.ac.kr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